

연세와 존 토마스 언더우드

김학은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존 토마스 언더우드와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다. 존이 맏형이다. 또 하나의 형 프레데릭은 젊어서 죽었다. 호레이스가 넷째이다. 그의 아버지 존 언더우드는 화학자 파라데이의 제자인데 잉크 제조를 하였다. 가족이 미국으로 뉴저지로 이민하였다. 존이 잉크 사업을 하던 중 타자기 특허권을 인수하였다.

존은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의 설립자이며 사장이 되었다. 그의 타자기가 등장하기 전에는 타자를 치는 사람은 자신이 치고 있는 서류를 볼 수 없었었다. 언더우드 타자기는 이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오늘날의 자기처럼 서류를 보면서 타자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으며 그의 회사는 곧 세계 최대의 타자기 회사가 되었다. 제2차 대전 시에는 칼빈 소총을 생산하였다. 그는 연회전문 상과에 많은 타자기를 기증하였다.

존은 한국으로 선교사로 떠나는 동생을 뉴욕에서 시카고까지 전송하였다. 언더우드 목사는 화란개혁신교회 소속의 뉴저지 주 뉴브런즈윅 신학교를 졸업하였다. 일본이 처음으로 받아준 미국 선교사 베르베크도 화란개혁신교회 소속이었다. 쇄국의 일본이 오랫동안 통상을 한 나라가 화란이었다. 일본에는 난학이 일어난 인연으로 어느 교회보다 비교적 쉽게 입국이 허락되었다. 그의 제자들이 명치유신을 주도하였다.

1884년 갑신정변의 실패로 박영효, 김옥균, 서광범, 서재필이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당시 일본에서 조선 입국을 대기하던 언더우드는 서광범에게 한국어를 배웠고 미국에 가는 그에게 뉴욕에 있는 형 존 언더우드를 소개하였다. 서광범은 존 언더우드의 도움으로 뉴저지의 랏커스 대학에 입학하였다. 서광범은 언더우드에게 편지하여 자신의 모친에게 기독교를 가르쳐줄 것을 요청하였다.

1899년 안식년에 에이비슨이 뉴욕선교본부에서 세브란스의 아들을 만났고 이어서 1900년 에큐메니칼 선교대회가 아버지 세브란스를 만나는 계기가 되어 그의 기부를 받게 되었다. 장차 계속되는 도움의 첫 시작이 10,000달러였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언더우드 목사는 서울에서 병원건축에 노력하고 있었다. 선교본부의 총무 엘린우드는 1899년 12월 5일 서울의 선교지부에 병원건축에 대한 의견을 묻는 편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언더우드 목사는 1900년 1월 16일에 답장을 보냈다.

서울선교지부는 귀하께서 12월 5일자 서신에서 문의하신 병원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도록 나를 임명하셨습니다. 귀하께서는 가장 저렴한 병원공사가격을 질문하셨습니다. 이곳 선교회의 의견은 이점에서 선교본부의 의견과 일치하는 듯한 데 병원은 한꺼번에 지어서는 안 되며 한 번에 두 세개의 병동을 짓고 병원은 서서히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회 위원회의 서너 명 위원들은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무엇인가 일이 되려면 최소한 10,000엔 혹은 금화 5,000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만일 미국에 가 있는 에이비슨 의사가 적절히 노력하면 이 액수의 돈은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는 에큐메니칼 선교대회가 열리기 3개월 전에 보낸 것이다. 에이비슨은 이때 엘린우드가 서울 선교부에서도 1만 달러를 예상했다고 말해서 기이하게 생각했다고 회고하였다. 이때 언더우드는 어떻게 5천 달러나 1만 달러를 자신 있게 예상할 수 있었을까. 혹시 자신의 형에게 기대하였을까.

저는 이 문제를 형에게 편지했으며 그 문제에 대해 제가 말한 것을 저의 형에게 듣기 바랍니다.

언더우드 목사는 에큐메니컬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언더우드 사장은 참석하였다. 언더우드 사장으로서는 제수가 서울에 진료소를 갖

고 있는 여의사였으니 새 병원에 관심이 많았다. 그녀는 독립문 부근에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것은 프레데릭 언더우드를 기념한 진료소였다. 그는 젊어서 죽었다. 언더우드 사장은 세계 최대타자기 회사의 설립자로서 동생의 선교사업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다. 하나의 예가 1891년 11월 20일자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한국에 파송할 6명의 선교사 가운데 저의 형이 의사 한 명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오후 귀하께서 문의하신데 대해 저는 형에게 이를 물어보았고 그는 흔쾌히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언더우드 사장은 동생을 언제나 도와주었는데 의사뿐만 아니라 1892년 남장로교 선교본부가 2명의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하는 것을 거절하자 언더우드 사장이 후원하여 한국에서 남장로교 선교가 시작될 수 있었다. 그 전인 북장로교 선교본부가 6명의 선교사를 파한할 것을 결의하자 그들의 봉급을 지원하였다.

언더우드 목사가 이른바 대학 문제를 놓고 평양과 힘든 줄다리기를 할 때 선교본부의 브라운 총무 앞으로 보내는 편지는 형에게도 보낸다. 1911년 6월 8일자 편지에 “이 편지의 사본을 한국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몇 분, 곧 저의 형과 세브란스 씨와 저의 고향 교회의 맥아피 박사 등에게 보낸다는 말을 잊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브라운 총무는 “귀하의 편지 사본은 세브란스 부인과 맥아피 박사와 귀하의 형 존 언더우드 씨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편지의 사본을 보냅니다. 그들은 선교본부의 한국 위원회의 회원들이므로 감리교 위원회와 이 안건 일체를 재검토할 10월 회의에서 당연히 발언할 것입니다.” 언더우드는 형에게 긴급전보를 보낸다. “최근 사정상 서울의 대학 문제 토론 모임 연기 필요함. 추가 정보 담긴 언더우드의 서신을 받을 때까지 회의 연기요.” 언더우드 목사는 형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가우처 박사와 만날 것을 주문하였다. “그 동안 저의 형님이 귀하를 기쁘게 만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언더우드는 평양 측의 심한 반대로 대학 설립이 지연되자 설립자금을 가지고 장로회를 떠나 감리회의 도움을 받을 것을 심각하

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 설립자금이란 학교부지 대금이다. 존은 현재의 학교부지 20만평의 구입자금 5만 3천 달러를 에이비슨 교장에게 보냈다. 거의 동시에 세브란스의 외아들 존 세브란스도 자금을 보내어 연희전문 부지 옆에 10만평을 구입하였다. 현재의 의과대학과 세브란스 병원 자리이다. 장차 두 학교의 연합을 계획하였다.

언더우드 목사가 작고하자 그의 친구 에이비슨이 연희전문과 세브란스 의학전문 양교 교장을 18년 동안 수행하였다. 언더우드 사장은 에이비슨 박사에게 자동차를 보내주어 오전에는 세브란스 교장 오후에는 연희 교장을 18년 동안 수행하는데 발이 되었다. 언더우드 사장이 동생의 유업을 추모하여 에이비슨 교장에게 10만 달러를 보내서 건물을 세우니 그것이 언더우드관이다. 오늘날 본관건물이다. 그 전에는 5편 달러를 보내어 치원관을 세웠다.

언더우드 사장은 세브란스와 함께 뉴욕선교본부의 이사를 역임하였다. 그는 또 아들 세브란스와 함께 뉴욕 5번가 150거리에 있는 감리교 선교본부에 설립한 “조선의 기독교육을 위한 협력이사회”의 이사도 되었다. 언더우드 사장이 회장이고 아들 세브란스는 재무위원장이었다.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의 창립임원 9명은 각각 쟁쟁한 인물들이었다. 언더우드 사장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그 가운데 2명은 소개할 만하다. 센트랄 부동산 채권회사의 사장인 헨리 몰겐소 I세와 맨하탄 철도 회사의 재무이사 다니엘 맥윌리엄스이다.

몰겐소는 부동산금융으로 거부가 된 사람인데 오스만 터키 주재 미국 대사가 되었다. 그의 재임시절 터키에 의한 아르메니아 2백만 명 학살사건을 세상에 알린 인물이다. 유태인 학살이 일어나기 30년 전 일이다. 그는 유태인이다. 그의 아들 헨리 몰겐소 II세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내며 대공황과 싸웠다. 전후에는 브레튼 우

즈 협정에 크게 기여하고 국제통화기금 창설에 공헌하였다. 그의 딸이 유명한 작가 바바라 터커만이다.

맥윌리암스는 세브란스 장로와 더불어 평신도운동에 뛰어든 2대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의 처남이 유명한 보석상 프레데릭 마퀸드인데 유니언 신학교와 예일 대학에 각각 대학교회를 기증하였다. 그가 죽자 맥윌리암스는 프레데릭 마퀸드 기금의 관리인이 되어 한국선교를 위해 최초로 6천 달러를 뉴욕선교본부에 맡기고 한국선교를 재촉하였다. 이 기부에 의해 중국에 있던 알렌 박사가 한국에 올 수 있었다. 무디 신학교에도 1천 달러를 기부하였다. 맥윌리암스는 뉴욕 라파엣 장로교회의 장로였는데 이 교회에서 언더우드를 한국에 파송하였고 그가 죽자 영결예배를 드린 곳이다. 1891년 2월에 쓴 한국선교회 연례회의의 보고서에 의하면 “두 채의 사택을 신축할 계획을 결정하여 지붕과 건축자재를 희사한 맥윌리암스 회사의 헌금”을 받았다. 미국 장로교 선교본부에서 시작한 한국선교가 연세대학교 설립에서 완성된 과정은 <별표>와 같다.

세브란스 와 함께 스탠더드 석유회사의 이사였던 프래트는 죽으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헌납하여 오늘날 유명한 프래트 예술 디자인 학교를 설립하였다. 그의 저택은 뉴욕 시 브루클린의 클린턴 언덕 Clinton Hill에 있었는데 이 지역은 부호들의 저택이 즐비한 곳이다. 언더우드 사장의 저택도 이 지역의 라파엣 거리와 워싱턴 거리가 만나는 곳에 있다. 라파엣 장로교회가 있는 곳이다. 언더우드 사장이 작고하고 유족들이 저택과 함께 약 1천 에이커의 부지를 뉴욕 시에 기증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언더우드 공원이다.

<별표>

